



HEADLINE NEWS

세계대도시 '20세기 문화예술' 전 개최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세계 9개 도시가 참여한 「세기의 도시전(Century City : Art and Culture in the Modern Metropolis)」이 열리고 있다. 국립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미술관이 주최, 올해 4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봄베이(현재의 '뭄바이'), 동경, 모스크바, 뉴욕, 라고스(나이지리아 도시) 등 총 9개 도시가 참여, 지난 세기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미술품과 영화, 문학작품, 음악, 디자인, 그리고 기타 각 도시의 개성이 깃든 아이템을 전시중이다. 이밖에 이번 행사에서는 각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 및 영화상영행사도 열리고 있다. 아울러 주최측은 전시회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웹 전시'의 가능성도 실험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시와 전시 주제는 아래와 같다.

- ▶ 뉴욕(1969-1974, City as Stage)
- ▶ 동경(1969-1973, Provoking the City)
- ▶ 라고스(1966-1970, Highlife in the City)
- ▶ 런던(1990-2001, City as Found Object)
- ▶ 리우데자네이루(1955-1969, Rhythmic City)
- ▶ 모스크바(1916-1930, Revolutionary City)
- ▶ 파리(1905-1915, City as Modernity)
- ▶ 봄베이(1992-2001, Transforming the City)
- ▶ 빈(1908-1918, City in Analysis)

(www.tate.org.uk/modern/exhibitions/centuryc.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자원봉사자 모집해 제설작업 실시 (일본 : 아오모리시·고쇼가와라시)

도시환경

- ② 저공해차 구입시 자동차세금 감면 (일본 도시)
- ③ 아이들을 위해 벌레소리 '再生' 추진 (일본 : 아츠기시)
- ④ 중고 컴퓨터를 학생 실습용으로 재활용 (토론토)

도시교통

- ⑤ 자전거 출퇴근직원 통근수당 최고 2배 지급 (나고야)
- ⑥ 교차로 교통사고 방지 위해 적색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 (토론토)
- ⑦ 전철역 주변 관광지 소개책자 발간 (동경)

행재정

- ⑧ 유전자변형 및 복제식품에 '마크' 부착 (동경)
- ⑨ 인터넷으로 관광명소 가상체험서비스 제공 (뉴욕)
- ⑩ 청소년 대상 市업무 가상체험용 웹사이트 개설 (토론토)
- ⑪ 거리 곳곳에 행정정보센터 개설 (뉴욕)

사회복지

- ⑫ 지역·약국별 조제약값 조사 발표 (뉴욕)
- ⑬ 市營진료기관 '24시간 종일진료' 추진 (일본 : 우츠노미야시)
- ⑭ '장애인손님 맞이' 가이드북 발간 (일본 : 아오모리시)
- ⑮ 모든 市立 문화시설 무제한이용권 발매 (홍콩)

① 자원봉사자 모집해 제설작업 실시 (일본 : 아오모리市·고쇼가와라市)

올 겨울 제설작업과 관련, 일본 아오모리시(靑森市)는 市 직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통학로 등의 눈을 치웠으며, 고쇼가와라시(五所川原市)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장비와 인력을 지원 받는 등 ‘민관협력형’ 눈 치우기를 실시했다. 아오모리市 폭설대책본부는 市 직원 중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를 제설장비 투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어린이 및 노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나 노인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투입했다. 또한 市 대책본부는 市内 모든 초중교 운동장의 일부를 눈 버리는 곳으로 개방토록 했다. 고쇼가와라市에서도 건설업체 및 수도공사업체 등으로 구성된 ‘五所川原建設協會’로부터 제설 장비를 지원 받아 통학로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아사히신문, 2. 16)

② 저공해차 구입시 자동차세금 감면 (일본 도시)

연간 CO₂ 배출량의 19%, NO_x 배출량의 41%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자동차세제(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그린세제’화를 시행하고 있다. 즉, 저공해차량을 구입 및 운행할 경우 자동차세금을 감면하고, 환경오염이 큰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세금을 가중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저공해차에 대한 감면 폭은 13~50% 수준인 반면, 차령(車齡)이 11년 이상인 디젤차, 13년 이상인 가솔린차의 경우 10%의 세금이 가중 부과된다. 차량취득세는 차종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지만, 저공해차의 감면 폭이 크다. 배출가스가 최소규제 값의 1/4 이하인 저공해차량은 향후 2년간 자동차세의 50%가 감면된다.

(www.mlit.go.jp/kankyo/green01.html)

3 아이들을 위해 벌레소리 ‘再生’ 추진 (일본 : 아츠기市)

일본 아츠기시(厚木市)는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벌레소리를 ‘재생’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방울벌레 등 우는 벌레를 증식·사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츠기市는 주변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각종 개발이나 농약 살포 등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벌레들이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에 市는 「고향생물을 볼 수 있는 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3년 동안 동요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친숙한 방울벌레, 여치, 귀뚜라미 등 7종의 벌레에 대한 생태·생육환경 조사와 인공사육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japan.hanmir.com/jtk.cgi?url=http://mytown.asahi.com/kanagawa/news02.asp%3fkiji%3d1048)

4 중고 컴퓨터를 학생 실습용으로 재활용 (토론토)

토론토市는 최근 컴퓨터·프린터·스캐너 등의 중고 전자제품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증대함에 따라 올해 3월말까지 비영리재단법인인 ‘기술교육 지원 및 협력센터’와 공동으로 4곳의 수거장소를 통해 중고제품을 모은 후, 학생들이 중고 컴퓨터를 이용해 소프트웨어의 설치방법을 터득하게 하거나, 컴퓨터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市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까지 가계·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12,000톤의 컴퓨터 중 7,000톤 정도가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市는 이러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 전자제품의 고비용·저효율 처리 문제를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기회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4.metrotor.on.ca/icsite/new.../2fac98c29d692850852569ec006b5e83?OpenDocumen)

5] 자전거 출퇴근직원 통근수당 최고 2배 지급 (나고야)

일본 나고야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자전거로 통근하는 시 직원에게는 통근수당을 최고 2배 인상하는 반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절반만 지급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직원의 통근스타일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바꿈으로써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자전거 통근 거리가 5km 미만인 경우 통근수당을 2,000엔에서 4,000엔으로 2배 인상하고, 10km~15km인 경우에는 6,500엔에서 8,200엔으로 인상한다. 반면,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직원에게는 통근거리 5km 미만의 경우에만 통근수당 2,000엔을 1,000엔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월간 신호등, 2001.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권)

6] 교차로 교통사고 방지 위해 적색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설치 (토론토)

토론토시는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운전자가 주행을 멈추지 않아 자동차 추돌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적색신호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장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차로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는 적색신호로 전환되는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의 주행 장면과 위반장면을 각각 촬영한다.

감시카메라 설치 후 실시한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위반사례가 4% 정도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도 신호위반이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치는 토론토시 외에도 해밀턴(Hamilton-Wentworth), 할턴(Halton), 오타와칼턴(Ottawa-Calton), 필(Peel), 워털루(Waterloo) 등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5개 도시에서 시범실시중이다.

(www.city.ottawa.on.ca/city_services/traffic/26_1_11_en.shtml)

(www.city.hamilton.on.ca/News/releases/archives/2000/171100.htm)

7 전철역 주변 관광지 소개책자 발간 (동경)

東京都 교통국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올해 2월 오에도센(大江戶線)을 이용해 갈 수 있는 東京의 명소 및 유적지 등을 소개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江戸・東京 역사낭만산책」이라고 이름 붙인 이 안내책자는 오에도센의 전체 37개 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정리한 것으로,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역의 출입구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안내책자는 都営 전철·버스·지하철 1일 승차권 또는 都営·營團 공동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다.

(www.kotsu.metro.tokyo.jp)

8 유전자변형 및 복제식품에 ‘마크’ 부착 (동경)

東京都는 유전자변형식품 및 수정란 복제 소고기 등 바이오 기술을 응용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마크’를 제정, 제조업체가 이를 제품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바이오 기술 응용식품에 부착할 마크는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있으며, 올해 3월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유전자변형·복제 등과 같은 바이오 기술을 응용한 식품이 많이 제조되었지만, 이러한 식품이 인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왔다. 이에 都에서는 그 동안 바이오 기술 응용식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왔으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알기 쉬운 표시를 하도록 요구해왔다.

(www.shouhiseikatu.metro.tokyo.jp)

9 인터넷으로 관광명소 가상체험서비스 제공 (뉴욕)

뉴욕시의 한 벤처기업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뉴욕 맨해튼의 이곳저곳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Dizzy City’라는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단순히 맨해튼의 지도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맨해튼의 골목골목을 여러 각도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업체는 맨해튼에 이어 뉴욕시의 나머지 지역들을 비롯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등의 도시들과 파리, 베를린 등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도 디지털화해 웹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해당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기업들을 좀더 자세하게 부각시켜주는 조건으로 광고료를 받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2. 8)

10 청소년 대상 市업무 가상체험용 웹사이트 개설 (토론토)

토론토시는 市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공업무를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id Zone’이라는 웹사이트를 市 홈페이지에 추가 개설했다. 市는 이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시청의 역할, 지방의회 입법과정 등을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市의 역사를 청소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특히, 여러 종류의 게임과 퀴즈 그리고 대화·정보 상자를 설치해 놓아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www.premier.gov.ca.on.ca/English/news/kidzone011101.htm)

🏠 거리 곳곳에 행정정보센터 개설 (뉴욕)

뉴욕市는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CityAccess'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CityAccess는 市内 여러 곳에 키오스크(Kiosk)를 설치, 시민들이 市の 원하는 부서에 인터넷으로 직접 접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정보망으로서, 보스턴市에 운영중인 '보스턴 /'와 유사하다(본지 제15호 「마을 단위로 행정정보센터 설치」 기사 참조).

현재 이를 통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는 구직 및 부동산 정보, 식량 및 공공지원 프로그램, 육아 및 탁아 정보, 건강 정보, 주차 규정, 노인복지시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자신의 주차 및 건축법 위반사실 그리고 부동산세 등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범칙금, 부동산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www.ci.nyc.ny.us/html/doitt/html/special.html)

🏠 지역·약국별 조제약값 조사 발표 (뉴욕)

뉴욕市 소비자보호과는 최근 시내 약국에서 판매하는 조제약값을 조사, 지역·약국별로 비교 발표했다. 市 소비자보호과는 약국 진열대에 놓인 일반 약품과는 달리 조제약값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가격조사를 실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일반성인용 조제약 20종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조제약 20종을 각각 선정해 시내 72개 약국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노인용 조제약 가격은 퀸즈 지역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지역에서도 약값이 약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뉴욕시내 모든 약국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150종의 조제약 판매가격표(Pink List)를 필히 게시해야 하며, 게시가격 이상으로 약값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www.ci.nyc.ny.us/html/dca/html/drg2001.html)

市營진료기관 ‘24시간 중일진료’ 추진 (일본 : 우츠노미야市)

일본 우츠노미야시(宇都宮市) 산하 보건위생심의회는 2002년부터 입원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구급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야간휴일구급진료소(市夜間休日救急診療所)’의 소아과와 내과의 야간진료시간을 현행 오후 7시~11시에서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병원의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4시간 진료체제’가 구축된다. 市는 이를 위해 기존 예산에 시설정비비 등의 항목으로 2억 3,500만 엔을 추가 배당키로 했다. 그 동안 시민들은 야간의 진료시간, 특히 소아과와 내과의 진료시간을 아침까지 연장해달라고 市에 요구해왔다.

(japan.hanmir.com/jtk.cgi?url=http://mytown.asahi.com/tochigi/news02.asp%3fkij)

市 ‘장애인손님 맞이’ 가이드북 발간 (일본 : 아오모리市)

일본 아오모리시(靑森市) 중심가에 있는 ‘新町상가진흥조합’은 ‘장애인손님 맞이’ 가이드북을 발간, 상가 주인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복지관련 NPO인 「SANNet靑森」이 엮은 이 가이드북은 약 30쪽 분량으로, 포켓 사이즈로 나왔다. 이 사회단체는 가이드북 발간에 앞서 장애인이나 ‘新町상가’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이드북은 이 조사결과를 반영, 종업원이 장애인손님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방법과 함께 종업원들이 대하는 태도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japan.hanmir.com/jtk.cgi?url=http://mytown.asahi.com/aomori/news01.asp%3fkiji%3d463)

㉠ 모든 市立 문화시설 무제한이용권 발매 (홍콩)

홍콩의 여가·문화과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시립 박물관·미술관·전시관 등 市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시설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을 1주, 반년, 1년 단위로 발매하고 있다. 市는 1년 또는 반년 이용권 소지자에게는 박물관 내의 기념품 판매점의 일부 품목에 한해 할인혜택을 해주며, 박물관 등에서 주최하는 강좌의 수강료도 10% 정도 할인해주고 있다. 1년 이용권은 가족단위로도 판매되는데, 개인이용권 요금은 100홍콩달러, 4인 가족 이용권 요금은 200홍콩달러이다. 아울러 학생,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이용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101/25)